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33호
10월 26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 의
02)2675-5181~3

■ 농협
301-0153-7296-01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목회자 평생교육원 '제1회 목회자 평생교육과정'

‘목회자의 생명력과 교회의 생존’ 주제로 열려...성경대로 믿고 바르게 전파, 전통주의 신앙 이어가야



김용덕 목사
목회자평생교육원장

교단 최초로 시행된 제1회 목회자 평생교육과정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목회자의 생명력과 교회의 생존’이란 주제로 지난 10월 17일(목)과 18일(금) 1박 2일간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에서 열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자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하성 총회 목회자평생교육원(원장 김용덕 목사) 주최로 양일간 열린 이번 목회자평생교육과정에서는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를 비롯 총회장 신재영 목사, 전 성결대 총장 정성준 목사, 원장 김용덕 목사, 성경총회장 김인찬 목사, 박건 목사, 김요한 목사 등이 주강의와 특강, 분반강의 등 목회현장에서 중요한 실질적인 강의를 위주로 한 열강이 계속되었다.

총회목회자평생교육 이사장이기도한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목회자가 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깊이 사고하는 한평생의 생각과 문화를 통찰하고 이에 더하여 본회의 이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복음전달자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1회 목회자 평생교육과정이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장 김용덕 목사는 환영사에서 “모두가 평생을 배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목회자들이 변하지 않아야 할 것과 변해야 할 것을 간파하게 될 때 평신도들의 신앙과 삶에 전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첫째날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된 개강예배에서 원장 김용덕 목사는 엡 4:11-12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인적자원개발 HRD’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 체질개선과 질적 성장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인 HRD를 활용해 담보상태의 교회의 인적자원개발에 응용할 것”을 권면했다.

이어 주강의 1순서로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객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폐해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에 침투해오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과감히 물리치고 성경대로 믿고 바르게 전파하며 전통주의 신앙을 이어가는 목회자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특강 1시간에는 정성준 전 성결대 총장이 ‘목회자, 나는 누구인가?—우리 시대 비평직한 목회자상’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

여주신 길을 따라 죽는 순간까지 따라갈 때 우리의 삶과 사역에 목회자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충만해져서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생존을 넘어서서 늦은 비의 새로운 은혜와 부흥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분반강의로 원로목사 및 담임교역자를 대상으로 ‘0A와 유튜브를 이용한 새로운 전도’(김요한 목사),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기독교교리의 이해’(박건 목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저녁 8시 부터는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를 강사로 성경총만 기도회를 갖고 성경총만, 말씀총만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목사는 롬 1:15-16 말씀을 본문으로 ‘지랄스 러워해야 할 복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둘째날 아침 기도회에서 김인찬 목사는 눅 22:39-46 말씀을 본문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증거를 통해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성전에서 기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천사의 도움을 받는 기도, 간절함으로 하는 기



도에 힘쓰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교단 정책위원장 주강의 2 ‘형성훈련이나 경건훈련’이냐를 주제로 한 강의 이후 무소속 국회의원 이연주의원의 ‘국가관’을 주제로 한 시국관련 강의가 이어져 나라의 안보를 위해 한 마음이 되었다.

제1회 목회자평생교육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조용목 목사, 원장 김용덕 목사, 국장 윤기석 목사, 총무 정영진 목사, 홍보 분찬우 목사, 서기 박건 목사, 회계 임형순 목사, 만나 조신남 목사, 스태프 정석현 목사, 박성윤 목사, 최은규 목사, 김기인 목사, 최승수 목사.



‘이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조용목 목사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베후 1:10~12)

실족한다는 것은 결국 신앙이 손상을 입거나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는 원인 재검토나 실족하게 되는 자는 모두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구세주에 대하여 왜곡된 관념을 가지는 것이 실족하는 원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야가 곧 예수님이 오셨지만 기이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야가 오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메시야가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야에 대해서는 고의로 눈을 감았습니다. 메시야에 대하여 잘못된 관념을 가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에상에 집착하는 것이 실족하는 원인이 됩니다.

세째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과 더불어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도 예언이 성취되는 날과 방법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에상에 집착하는 것은 실족하는 원인이 됩니다.

넷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실족하는 원인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사역에 정진

제68차 총회 제6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6회 임원회가 지난 10월 15일(화) 오전 11시 순복음 반송교회 회의실에서 열려 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바탕 되어 기도한 뒤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회계 김건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기도, 서기 정영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마 6:21-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눈이 성하면 바르게 볼 수 있지만 눈이 나쁘면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가짜를 구분해 낼 수 있다”고 전한 뒤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바른 신앙생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정영진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의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경진 목사의 회원평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으로 10월 3일(목) 열린 한국교회 기도의 날 기도회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으로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역자은퇴보고, 교회폐쇄 청원 건

들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10월 17일-18일 1박 2일간 열리는 제1회 목회자평생교육과정 교육 준비사항 점검, 선교현장 목회자 목사안수 요청 건에 대한 처리, 제9차 전국사모단합대회 개최,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제34차 정기총회 참여 건, 제68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준비점검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기지협, 교단장·총무취임 감사예배

신신목 대표회장, 한국교회 개혁운동의 견인차 역할 당부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지난 10월 10일(목) 오전 11시 코리아나호텔 글로벌아홀에서 2019년 교단장·총무·사무총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단을 이끌어갈 교단장들을 격려했다.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께 사명을 주신 것은 교단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된 한국교회에 새로운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부여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교단장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교회 개혁운동의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사회로 예정합동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의 기도, 한기지협 이사 강지현 장로의 성경봉독, 정로중장단의 특송 후 예정통합 증경총회장 최병두 목사가 삼하 2:1~7 말씀을 본문으로 ‘위대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이어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신임교단장과 총무를 위해’, ‘나라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에’, ‘한국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해’, ‘북한동포의 해방과 행복을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한기지협 상임총무 김택기 목사의 광고, 서울기독교대 명예총장 최윤권 목사의 축도 후

이어전 축하시간은 한기지협 이사 김병은 목사 사회로 기감 전 감독회장 김진호 목사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기지협 상임고문 서기행 목사는 격려사로, 문광부 이우성 총무실장·한기지협 상임고문 지덕 목사·기성 증경총회장 이용규 목사는 축사로 서 신임교단장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한국교회연합 2019 신임교단장 총무 취임

“나라를 선도하며 한국교회 하나되는 데 앞장서자” 다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10월 8일(화) 군포제일교회 비전홀에서 2019년 신임 교단장(단체장) 총무(사무총장) 취임감사예배 및 취임축하예식을 갖고 나라를 선도하며, 연합과 일치로 한국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한국교회연합이 될 것을 다짐했다.

신임 교단장과 총무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감사예배에서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여호와와 구원을 보라”

제하의 설교를 통해 “요즘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과 지배,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진영논리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수든, 진보든 진영논리에 빠지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하며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해야지 내 편이냐 내 편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는 현상이 집단화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 제13회 전국대회

참석자들 교회의 본질회복에 앞장설 것 다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강용희 목사)는 지난 10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여전도회관 2층 루이지기침관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요 13:34-35)’라는 주제로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 제13회 전국대회’를 갖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이웃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을 결의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회와 신행일치의 목회자가 될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사회에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했다.

대표회장남윤국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국



내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깨우치는 징계의 일환이요,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모인 우리가 통회자복하며 기도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앞장

서자”고 강조했다.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는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정신과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교회제모습찾기를 소원하며매일 기도회와 전국대회를 통해 이를 실현해오고 있다.

예장개혁총연, 총회장 김태경 목사 취임

직분 감당위해 기도와 충고해 달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 제104회기 총회장 취임 및 임원 임직 감사예배가 지난 10월 8일(화)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드려졌다.



총회장 김태경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총회장으로서 증경총회장들의 뒤를 이어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총회로 위상을 높이

겠다. 아름다운 총회, 열매 맺는 총회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

고현석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정미하 목사의 기도, 김나단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후 엄신형 목사가 반석 위에 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엄 목사는 마 7:24~2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총회와 노회와 교회와 목회자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서야 한다. 한국교회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면서 “반석 위에 서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양식이 되어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종준 총회장 취임·임직 감사예배

예정합동 증경총회장단 등 참석해 축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제104회 총회 김종준 총회장 취임 및 제13차 임직 감사예배가 지난 10월 12일(토) 서울시 상계동 소재 꽃동산교회에서 드려졌다.

이날 임직예배에서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총회장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또한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회와 꽃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주시고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회기 동안 겸손한 마음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총회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무를 꿰고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계와 교단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임직식을 통해 197명의 성도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로 세웠다.

임직식에는 서기행 목사, 최병남 목사, 김선규 목사, 이승희 목사, 백남선 목사, 전계현 목사, 안명환 목사, 최우식 목사, 윤선을 장로 등 예정합동 교단을 대표하는 증경총

회장단과 인사들이 안수위원 및 순서자로 참여했다.

임직예배에서 이승희 목사는 설교를 통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여호와와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을 심판하기 위해 당당히 전쟁터에 나섰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면서 “교단을 이끌어갈 김종준 총회장과 교회회를 세우는 역할을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힘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영남 장로는 임직자 대표로 임직패를 받았고, 김용선 장로는 성도 대표로 답사를 하며 감사를 표했다.

계속된 임직식은 김선규 목사(증경총회장), 최병남 목사(증경총회장), 안명환 목사(증경총회장), 백남선 목사(증경총회장), 최우식 목사(총회 총무), 오정현 목사(지침개발원 이사장), 김정훈 목사(GMS 이사장), 이재서 총장(총신대 총장) 등이 권면과 격려사 및 축사를 하며 김종준 목사와 임직자들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국찬송가작가총연 창립11주년 기념예배

기념예배 및 제5회 신작찬송가 발표

한국찬송가작가총연합회대표회장 전희준 장로는 지난 10월 9일(수) 오후 7시 30분 성락성결교회(담임 지형은 목사) 대예배실에서 창립11주년 기념예배 및 제5회 신작찬송가 발표회를 갖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

이날 기념예배는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의 사회로 공동회장 박재현 목사의 기도

총무 전순천 목사의 성경봉독, 지형은 목사의 설교, 공동회장 김소영 권사의 축사, 대표회장 전희준 장로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설교에 앞서 지형은 목사·이보철 작곡·최기욱 편곡의 ‘주님 사랑 값없어라’를 성락성결교회 찬양대가 불러 은혜를 끼쳤다.



제5회 신작찬송가발표회는 공동회장 이동훈 교수의 사회로 글로벌아 코랄(지휘 정성수)이 ‘주의 성령여사하사’(정재규 작사, 박성화 작곡) 외 3곡을 원프로젝트 남성합창단(지휘 김성균)이 ‘우리나라 새우신’(류재학 작사, 전낙주 작곡) 외 3곡을, 성락성결교회 헤세드중창단(지휘 신영애)이 ‘주님 주신 우리교회’(전희준 작사, 이동훈 작곡) 외 3곡의 곡들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2008년 9월 창립예배를 드린 동 연합회는 그동안 한국찬송가 개선방안과 새로운 개발 방안을 위한 세미나, 장차 찬송 400곡이 수록된 비전찬송가(9집까지) 발행 등 한국인의 심성과 정서에 맞는 은혜로운 찬송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

성서공회, 후원회원 초청 성경기증 예식

성경제본 시설 견학 및 간담회도 가저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는 지난 9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공회의 후원회원들을 초청하여 ‘성경기증 예식’과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언어와 형태로 성경이 제작되는 성경 제본 시설 ‘바 이블코리아’ 견학프로그램, ‘서아프리카 불어권 성서공회의 사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후원회원들은 해외 성서기증 사업에 대한 현황을 소개받고, 기증된 다양한 언어의 성경을 직접 보며, 해외에 기증하는 성경이 컨테이너에 실리는 현장을 참관하였다.

‘서아프리카 불어권 성서공회의 사역에 대한 간담회’에는 성경 출판 이론과 실무 교육에 참석한 14개국 성서공회들의 총무들



중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차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가봉, 말리, 세네갈, 토고, 아이티 등 12개국 총무들이 참석하였다.

각국 성서공회 총무들은 소속된 성서공회 사역과 국가상황에 대해 보고하며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하였으며, 참석한 후원회원들에게 꾸준한 후원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후원회원들은 이 간담회를 통해 서아프리카 각국의 실제적인 상황과 사역경험을 현장감 있게 전해들을 수 있었다.

지난 2008년 성경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미지림성서공회에 대한 성서기증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의 후원이 계속 증가하였다.

예장열린총회, 제19회 정기총회 성료

총회장에 김신옥 목사 선출 등 임원개선

대한예수교장로회(열린)총회는 지난 10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충북 충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총회장에 김신옥 목사를 선출했다.

‘오직 예수!’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정

기총회는 전국에서 총대들이 참석해 교단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립하고 제19회 기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선출했다.

본격적인 회무처리에 앞서 1부 예배는 총무 정은숙 목사 사회로 부총회장 김경호 목

사의 대표기도, 부회의록서기 채정숙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김신옥 목사의 빌 1:20-21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주권인 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설교순으로 진행됐다.

증경총회장 김명자 목사의 축도 후 2부 성찬예식은 전 총회장 김의경 목사의 집례로 분병과 분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성만찬의 거룩한 뜻을 되새겼다.

3부 회무처리 시간은 총회장 김신옥 목사의 진행으로 회원점령과 개회선언 후 2019년 총회보고를 비롯한 서기, 각 노회보고를 유인물로 받기로 했다.

회무처리시간에는 신안건 토의와 회의록 낭독과 임원소개 및 회징분배를 끝으로 마쳤다.



김갑신 원로목사 추대 및 황용연 담임목사 취임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10월 13일(주일) 오후 5시 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에서 김갑신 목사의 원로 추대 및 황용연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윤근 목사(광양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서기·회계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기도, 배용환 목사(순복음전원교회)의 성경봉독, 증경지방회장 김갑신 원로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출 39:42,43 말씀과 딤후 4:6-8 말씀을 본문으로 '중요한 만남'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순



교적 정신으로 복음 사역에 임해 줄 것'을 후배 목사들에게 당부하였다.

2부 추대식에서 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의 김갑신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청빙되어 온 황용연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이어 증경지방회장 최현택 목사(평안

혜와진리교회)의 축사와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의 권면 및 축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황용연 담임목사는 축하해 주기 위해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취임예배를 기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믿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집사·권사 안수 및 장로 임직예배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10월 6일(주일) 오후 4시 30분, 남원중앙교회(담임 서정복 목사)에서 집사·권사 안수 및 장로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회계 박종석 목사(벤엘전원교회)의 기도, 서기 이광호 목사(합리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삼하 9:1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와 의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목회자의 은혜, 셋째는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의리를 지키자'라며 목회자와 성도의 의리, 임직자와 목회자의 의리를 강조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서정복 목사의 집례로 장로 및 권사 은퇴식을 갖고, 3부 순서는 장로장립 및 추대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는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의 진행으로 장로 임직자의 서약 및 공포 그리고 명예장로 추대를 하였다.

이어서 4부 집사안수, 5부 권사 안수, 6부 명예권사 추대의 시간을 갖고, 7부는 증경지방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알곡교회)와 교단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영주청신교회)의 권면, 교단 교회성장국장 오승욱 목사(천안서북교회)와 교단 증경총회장 배진기 목사(오항안디옥교회)의 축사, 증경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안면도에서 야유회 갖고 하나님의 창조물 만끽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장호순 목사)는 지난 10월 14일(월) 안면도에서 야유회를 갖



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만끽하였으며, 지방회원들은 연합과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관광버스 안에서 지방회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준비한 간식을 나

누며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섬기는교회) 사회로 원로 류승찬 목사(순복음여울교회)의 축사 후, 하루 일정을 소개하고 찬조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안면도에 도착하여 안면도해변에 준비된 활어회로 오찬을 나누고 수산직판장에서 각종 해산물을 구경하며 펼쳐진 바다 위로 몸과 마음의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장소인 코리아 플라워 파크(기을꽃축제)에 도착하여 국화 꽃 핑크 물리, 코기아, 팜파스 그라스 외 다수의 품종을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꽃길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지방회장 장호순 목사(순복음금강교회)의 섬김으로 흥성 맞은 코리아식당에서 맛있는 동태탕을 식식으로 야유회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자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10월 15일(화) 오전 11시 익산 순복음제일교회(담임 최강욱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서기 이광호 목사(합리순복음교회)의 기도, 증경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삼하 5:12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이 알았더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회원들 간



의 교제를 강조하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2부 월례회 시간에는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의 인도로 각종 회부를 처리하였으며 월례

회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순복음제일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고, 서로의 교제와 화합을 위해 서동공원에서 등산과 답사로 목회의 정보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성경전래기념관에서 단합대회 가져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준 목사)는 지난 10월 10일(목) 지방회 단합대회를 갖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 더욱 화합하고 결속하여 교단과 지방회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을 다짐했다.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의 하루 일정 기도로 이목순복음교회에서 오전 8시, 24명의 회원들이 출발하여 오전 10시 30분에 목척지(충남서천 성경전래기념관)에 도착하여 먼저 해빈 스키이웨이 및 빙판빙 산책로를 가법게 산책하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맛있는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성경전래 기념관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어떻게 전래되었는지에 대해 기념관 해설사를 통해서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관람을 마치고 기념관에서 나와 장소를 이동하여 마량포구에 도착해 회원들과 해변을 즐겁게 산책하고 청주로 이동하였다.

일정 마무리로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의 인사와 기도로 바쁜 사역기운에서 단합대회

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고, 모든 회원들의 사역기운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내며 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되기를 축복하며 단합대회 일정을 아름답게 마쳤다.

‘2019 청년 찬양발표회’ 은혜가운데 열려

750여 청년들, 성도된 기쁨과 사랑과 헌신의 열정 담아 찬양

2019 청년 찬양발표회'가 지난 10월 5일(토)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 대성전에서 전원성전 청년봉사선교회 주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청년 찬양발표회에서는 안양, 수원, 안산, 인천, 관교, 영등포, 김포, 부천, 부평, 시흥, 시화, 과천, 포일, 부곡, 울진, 영동, 안중, 세종, 대전, 동탄성전의 청년들이 13개 합창단과 중창단을 구성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선사하였다.

전원성전 청년봉사선교회 박성만 회장



의 사회와 권영호 장로의 기도, 김정훈 목사(은혜와진리교회)의 축사로 찬양회가 저마다 특색 있는 감사와 기원의 찬송, 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열정이 담긴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송축하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였다.

기쁨과 감사 충만, 사명감 충만... 서리집사 임직예배

1,136명 집사 임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다짐

은혜와진리교회 2019년도 서리집사 임직예배가 지난 10월 9일(수) 오전 각 성전에서 동시예배로 드려져 성도 1,136명이 집사로 임직되었다.

임직자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성도의 기쁨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도록 부름 받은 귀한 사명을 깊이 인

식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착하고 충성스럽게 직임을 수행해 나갈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다짐하였다.

수요1부 예배와 함께 드린 이날 임직예배에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강해설교 말씀에 이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성직의 의의와 직분을 수행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지금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듯의 패와 같다. 집사는 십자가 정병으로서 영적전쟁의 선두에서 싸우는 '백부장'의 역할과 같은 임무가 주어져 있다."고 강조하고, 오직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직임을 수행하며 사명감 이상의 행복감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집사가 되도록 격려하고 축

복했다.

서약과 공포와 임직증서 수여 순서에 이어 교단 전직총회장 이용주 목사와 임종달 목사가 축사를 통해 축하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교단 전직총회장 진동웅 목사의 축도로 시종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던 이날 임직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정 의 섭 목사

· 교단 부총회장
· 청주지방회장
· 한소망교회 담임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이 만큼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서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신앙고백입니다. '나의 나 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1. 은혜란 무엇인가?

10절은 은혜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나의 나 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과연 은혜가 무엇일까요?

창 6:8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만이 유일하게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은혜란 말이 '은총, 자비, 인자'란 말로 표현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은혜란 말이 '키리스'로 그 뜻은 본래 [기쁨]이란 뜻입니다.

니다. 은혜의 또 다른 뜻은 '호의'란 말로 어떤 [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2.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①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갈 1:15)

② 은혜로 '믿음'을 주십니다. (행 18:27)

③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엡 2:8, 행 15:11, 롬 1:17, 엡 2:5)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④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엡 1:7, 롬 3:24)

⑤ 은혜로 직분을 받습니다. (롬 1:5, 딤후 1:12)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 하나님의 은혜를 이르는 사람은 주신은 헤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원한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은혜는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란 영원히 버림받아 죽을 사람을 살게 해 주신 생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죄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보혈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들이어서 하나님의 품

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져 주신 것입니다. 엡 2:8 말씀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병들고 영혼이 죽어 영원히 멸망 받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도저히 값으로 계산 할 수 없어서 겨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려면,

① 지난날의 내가 누구였던가? 즉 자신의 실존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엡 2:1-5).

본문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였던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하고 부족했던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이 귀한 은혜야말로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았습니다. 바울이 과거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를 기억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나의 나 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순간부터였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방향을 돌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고부터 자랑했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내버리고 오직 복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②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50편에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③ 남은 세월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수고한 것이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감사하였고 수많은 위험을 당하는 것은 고생을 다 했음에도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이 이룬 공적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바울의 나의 나 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④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을 참 잘 표현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나 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신앙이 표현되고 고백되고 전달되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을 표현하고 살면 먼저 자신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의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신앙의 표현입니다. (2)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3)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4) 하나님의 뜻입니다.

※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롬 3:24)

② 내가 성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엡 3:7)

③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하 7:28, 딤후 1:14)

④ 결과적으로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롬 14:8)

했지만, 공영방송인 KBS가 처음부터 공정하고 제대로 된 방송을 했다면 엄청난 국력낭비와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 정권과 권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유한하다. 그렇다면 KBS는 언제나 국민들과 언론 수용자들과 함께 가야 한다. KBS가 정언유착(政言癒着)이 되면 방송사는 물론, 국민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KBS는 지금까지도 매우 편파적이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방송을 해 왔다는 불만이 국민들로부터 광배(廣配)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KBS는 권력 편에 서지 말고 정론과 정도, 그리고 공정과 공평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KBS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동 정

칼빈대, 샘병원과 업무협약



칼빈대학교(총장 김근수 박사)는 지난 10월 7일(월)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이사장 이대희)과 사단법인 아프리카

카미레재단(대표 박상은) 관계자들을 초청해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칼빈대와 샘병원은 이번 MOU를 통해 산학 발전을 위한 인력 및 물적 자원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총 신임 교단장 취임예배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총무 김고현 목사)는 지난 10월 11일(금) 서울 성북구 베스트웨스턴 아리랑힐 동대문에서 회원교단 신임 총회장 및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한정총은 이날 신임 총회장장과 총무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이 시대의 등불이 될 것을 다짐했다.

'추수 감사 농어촌 선교의 밤'



한국농어촌선교단 제협의회(회장 소구영 목사)는 지난 10월 24일(목) '2019 추수 감사 농어촌 선교의 밤'을 서울중구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농어업계 인사, 농어업기관 및 단체의 기독교회를 비롯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 농어촌부, 한국농선회 후원교회와 회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한 박사, 학술대회서 강연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교 학술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가 지난 10월 19일(토) 과천 소망교회에서 열린 가을학술대회에서 '젠더주의의 문화인류학적 성혁명-핵심 주장,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주제강연했다. 김 박사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성정체성, 사명과 역할까지 해체하고 있다"고 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공영방송 KBS 언제까지 권력 편에 설 것인가?

오즘 KBS가 갑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14일 사퇴)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다. KBS는 지난 9월 10일 조국 장관의 자선관리인인 김 모 씨와 인터뷰를 하고 11일 그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10월 8일 유튜브 '알릴레오'의 유시민 씨가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제대로 방송하지 않고, 그 내용을 검열해 넘겼다고 반박하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KBS는 10월 8일, 9시 뉴스에서 유시민 씨의 주장이 다르다고 방송하였다.

문제는 KBS 사측이 취한 태도이다. KBS는 유시민 씨의 말을 듣고 '진상조사단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기존의 취재팀이 아닌 '특별취재팀'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즉 조국 장관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KBS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 반발할 정도로 KBS는 편파, 왜곡, 조작을 멈추지 않고 조국 장관과 문재인 정권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내부의 비판이 일어난 것이다.

KBS는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노무현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시민 씨의 말 한 마디에 자신들의 집안을 들추셔놓은 것이다.

KBS는 국가 공영방송이다. KBS는 해마다 6,000억 원의 국민들이 낸 시청료로 운영되는 방송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바른 알권리보다, 방송의 공정을 위해 수고하는 기자들이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권력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같다.

오죽하면 KBS 기자협회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언론의 자유를 천명하기로 결의까지 하였는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언론이 언론의 바른 책무를 못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밟혀 그 존재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결국 KBS는 10월 11일 특별취재팀이나 조사위원회 구성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인가?

조국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시위 촉구로 14일 정관지에서 물러가는데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바로 선 사상과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날짜를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바로 선 사상과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목양 패러다임

임석순 목사 // 한국종교교회 담임

한국교회 미래에 적용할 실제적 목회 패러다임①



이 시대에는 세상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보이는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세상 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의 삶을 사는 지도자가 있어야합니다

들어가는 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측하게 하시는 것은 역사적 소명, 즉 미래에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와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말씀을 통해 찾고,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 예측하며 어떻게 실천해갈지를 생각하여 보고자 합니다.

1. 한국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1900년대 한국 교회의 기초를 세운 한국 교회 1세대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고,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 1세대 선배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1세대 거목들이 하나, 둘 떠나고 한국교회는 그 분들이 이루어 놓은 서광 위에 교회 빛을 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출생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은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는 큰 성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활하던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렇듯 한국교회의 2세대들도 한국교회의 엄청난 성장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세대는 광야를 겪어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했습니다. 이들이 곧 한국교회의 부흥 이전의 모습과 그 과정을 보지 못하고 이미 발전된 상태를 누리고 있는 한국 교회의 미래세대와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결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되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되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신 6:11)

파지 아니한 우물'은 아직도 부를 파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여전히 A산원과 같은 파지 아니한 우물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날 한국의 위기를 보며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한국은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욱 큰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는 바로 오늘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떤가?

한국은 1960년에 5천개의 교회, 6만 명의 성도들

기록했고 40년이 지난 후에는 교회가 6천개, 성도의 수는 9백만으로 늘어났습니다. 40년 만에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단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성도의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갤럽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에 한국 국민 중에 종교인이 50%이고 이 중에서 22%가 불교, 21%가 개신교, 7%가 천주교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국 퓨리처 센터에 따르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미국 성도의 35%이며 유럽은 69%, 한국은 23~25%라고 합니다. 2025년도에 한국 교회에 그러한 성도의 숫자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6년 안에 마주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재 교회 안의 세대는 이스라엘의 2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 6년 이후의 미래세대 대다수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세대와 같을 것입니다. 결코 머지않은 미래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인데도 미래세대를 돌보아야 할 한국 교회는 여전히 매우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어떻게 이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권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4-9)

신명기 6장은 가나안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의 2세대와 3세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한국 교회 3세대의 시대를 준비하고 한국 교회가 몇 년 안에 마주하게 될 심각한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방책이기도 합니다.

1)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 6:12)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배불리 먹고 사는 세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소유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교회들이 놀이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재미로 교회에 나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여호위를 잊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와 세상 것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기쁘고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들이 풍성한 한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엡 2:45)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수단 삼아 기도하고 찾기도 하지만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리지 않으면 풍요 속에서 여호위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2)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신 6: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위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겠나 아가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하노라 함이라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렐 3:13-16)

말라기 3장 16절의 '그 때'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때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완악해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세상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보이는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세상 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의 삶을 사는 지도자가 있어야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장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렐 3:16-19)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하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자유권과 평등권은 무제한한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는 상대적 권리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의 요인 중 하나는 시·도민 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찬반 논란이다. 인권조례의 모범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인권 관련 법률과 조례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이 있어서 동성애 옹호 및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세법위원회와 동부부와 국회조찬기도회, (사)국가조찬기도회가 중심이 된 한국교계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민주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두 건을 한국교회와 반대하여 자진 철회케 한 바 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는 12월 2일 한국교계 26개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삭제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그리고 각 교단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22만 명의 서명을 받아 2016년 4월 7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동의서를 받아왔다. 또한 2017년 4월 2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제안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20대 국회가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삭제 개정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의 요인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을 반드시 삭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로 성문화함과 동시에 건강한 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조장 지원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나아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더욱 심각한 것은 변태적인 성행위(항문

성교)를 하는 남성 간의 성행위로 인하여 난치병인 에이즈(AID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나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발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 3호에 근거하여 초·중·고 교과서에 동성애를 미화하여 어린학생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군복무중인 동성애자를 조기전역 시키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자와 임보호하고 있으며 군기를 문란케 하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금하는 군형법마저 폐지시키려 하고 있다. 어떠한 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거나 군대에 보낼 수가 있었는가?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명분을 내세워 지방의회로 하여금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시민헌장을 제정하고 동성애를 지원 확산시키는 정책을 계속 권고하여 현재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추종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상 자유권과 평등권은 무제한한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질서유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는 상대적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동성결혼이 비정상적·비윤리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이다. 그러나 형사정책상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자체를 정상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친동성애정책을 펴게 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등 역차별로 과잉보호하고 있는 것은 소수자 인권보호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며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제20대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 3호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해 줄 것을 여야 국회의원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기독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학년도 제1학차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수: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1)페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협)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남)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3)타식폴린: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면역력 증가

6)칼슘: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제9차 전국 사모단합대회

'아름다운 결실, 풍성한 열매' 위해 기도와 헌신 다짐

예하성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 1:14) 주제로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에서 열려



개회예배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폐회예배
총회장 신재영 목사



전국사모회장
김귀순 사모

교단 2019 전국사모단합대회가 지난 10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2박 3일간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과 상암동 하늘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철 알찬 수확을 앞두고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지 돌아보고 더욱 주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 1:14)라는 주제 아래 2박 3일간 이어진 이번 단합대회는 첫날인 21일 오후 3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단합대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개회예배는 전국사모회 회장 김귀순 사모의 사회로 1부회장 신명희 사모의 기도, 서기 김숙자 사모의 성경봉독,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회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하

고 아름다운 소원과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전하고, 교회에 주어진 막중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강조한 뒤 성도들이 성경적인 역사관과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진정으로 국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조 목사는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돌보며 담임목사님을 보필하는 행복감이 충만하고 훌륭하게 직임을 감당하는 사모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모들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모든 일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면서 섬기는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단의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어 회계 유순희 사모의 헌금기도, 총무 김세희 사모의 광고,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이 때를 위한 사명을 깨닫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단합대회는 뜨거운 찬양으로 마음과 마음을 모아 사랑 나눔의 복된 시간을 열었다.

저녁식사 후 사모회원들은 강사인 김성근 목사(노원하나교회)의 은혜로운 메시지와 뜨거운 기도를 통해 큰 도전을 받는 비전과 은혜의 시간을 함께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성지인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을 돌아보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이름 모를 외국인 선교사들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모으고 하

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월드컵공원 내 역사축제가 한창인 하늘공원으로 이동하여 역사풀 숲을 가르며 서울의 만추를 사진에 담는 가 하면 핑크몰리와 뚝섬리 화단에서는 만추의 주인공 모델이 되기도 했다.

셋째 날은 오전 9시 설문지작성과 행운권추첨 시간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회원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곧바로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

사의 설교로 폐회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 목사는 왕하 4:1-74 말씀을 본문으로 '어느 사모에게 일어난 기적'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사역자로 내조자로 세우셔서 크게 들어 사용하심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힘을 내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전국사모회원들을 축복했다.



소년소녀·성민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성민원, 국내 유일무이한 1·3세대 합창으로 지역 세대간 장벽 허문 하모니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산하 단체인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이 운영하는 성민소년소녀합창단과 성민실버합창단이 최근 군포제일교회 예루살렘예배당 시온홀에서 연합으로 'Sing Together'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성민소년소녀합창단과 성민실버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1·3세대가 함께 하는 합창 정기연주회라는 점이다.

사단법인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는 "성민원의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찬양함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어가고 있다. 하늘에서 주신 은혜와 열정으로 늘 새로운 꿈을 꾸고 한국과 세계의 빛이 되는 합창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날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으로는 성민실버합창단이 세레나데 외 5곡, 성민소년소녀합창단이 Furaha(Joy!) 외 7곡을 울동과 함께 선보였고 1·3세대 합창으로 '동물농장', '귀여운 꼬마', '주 하나님 크시도다'를 연주했다.

이날 연주회에서 특히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당연 1·3세대 합창이었다. 아이들의 맑고 경쾌한 소리와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중후한 소리가 어우러져 참석한 모두에게 세대를 초월하는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군의원, 노명환 재경 함양군 향우회장 등을 비롯한 쥔신문학회 회원, 마천주민, 각지에서 온 축하객 100여 명이 참석해 기념비 제막을 축하했다.

이날 제막식은 임문혁 쥔신문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이실태 목사의 기도, 국민의례, 오동춘 회장의 인사, 허만배 쥔신문위원회의 연혁보고, 오동해 쥔신문위원회의 쥔신문화 기념비 건립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쥔신문학, 기념비 제막식 가져

쥔신문학회 창립 20돌 맞아 성대히 제막

금년으로 창립 20돌을 맞이한 쥔신문학회(회장 오동춘 목사)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쥔신문화 기념비'를 세웠다.

지난 10월 9일(수) 오후 3시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창리 도촌마을 지리산교회 앞에서 가진 제막식에는 허영자, 김종상 원로시인, 서준수 함양군수, 이경규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제6주년 WCC 반대성회

▶ 일시: 2019년 10월 26일 (토)
▶ 시간: 오후 1시
▶ 장소: 청계천 한빛광장
▶ 설교: 안명환 목사(합동 중경총회장)
▶ 축하: 김남식 박사(합동)
▶ 주최: WCC·WEA 반대운동연대

한국교회여!
제2의 신사참배인
'WCC'를 회개하라!

하나님과의 원수인
2013년 10월, '제10차 WCC 부산총회',
2014년 5월, 로마총회 카를라카의 '신앙과 적절일치',
2016년 3월, WEA 세계지도자대회 개최!

이 모든 약행의 제공자인 교단들과 목사들이 회개치 않으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70년간 바벨론 포로생활을 했던 교회를 뼈에 새기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WCC = WEA = 로마 카톨릭!
이 공식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될까?
이러니 104회 총회에서 WEA와의 교류금지가
동과될 터이 없지...
합동측 앞날이 참으로 암울하기만하다.

사후에 심판을 받을 것인가? 생전에 회개할 것인가?
'네 백성이 지각이 없이 망하는도다'(호 4:6)

2020년 네덜란드
평화궁전에서 열리는
세계 종교간 통합 선언식!!

2020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Peace Palace)에서
교황, 달라이 라마, 기독교 WCC 지지자,
성공회, 이슬람, 힌두교 지도자들이 모여
종교 평화라는 명목으로
각종교의 통합과 일치를
피하고 있다.

신간 안내

제임스 패커의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복음전도, 인간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복음전도의 성공은 회심을 이끌어 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지 않다." 일평생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선교사들이 있다. 과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본서에서 저자는 복음전도의 결과가 사람들의 바람이나 의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결코 복음전도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같은 신앙이 없을 때 복음전도는 지속적인 생명력을 잃고 힘을 상실한다고 경고한다. 일시적인 좌절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고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밖에 없다고 저자는 힘주어 강조한다.

저자/역자: 제임스 패커/조계광 | 출판사: 생명의말씀사(138*200)mm 184p | 판매가: 10,000원

어섬션 : 우리 삶을 움직이는 전제들



이 책에서는 우리 안에 형성된 전제의 기원을 두 가지로 보았다. 바로 성경적 가치를 내세운 하브라임의 전제와 세속적 전제로 대변되는 고대 그리스의 전제다. 그리고 개척 당시 성경적 전제로 법과 문화 체제를 세웠던 미국의 예를 들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워진 미국은 인간의 이성을 숭배하는 모더니즘을 지나 '절대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에 휩싸였다. 그러면서 나라의 근간이 되었던 성경적 가치가 세속적 가치로 대체되었다. 문제는 이런 전제의 변화로 하나님과 생명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이런 변화된 관점은 연쇄적으로 정치, 교육, 법률, 문화의 조류를 완전히 바꾸어버렸다.

저자/역자: 크리스찬 오버먼/박용진,사정원 | 출판사: 도서출판 디모데 262p | 판매가: 13,000원

세 원로 철학자가 남겨 준
인생의 열매들



김형석, 김태길, 안병욱 교수는 같은 해에 태어났고, 판포지교이며, 동일한 분야의 학문을 전공했는가 하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영역에서 50년 동안 활동했다. 김태길, 안병욱 교수가 살아있다면, 세 분 모두 올해로 100세가 된다. 이제 김형석 교수가만 남아 전국을 다니며 강연과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김형석 교수가 강연을 갈 때 종종 듣는 말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빈곤했던 시절, 세 분은 저학에게 큰 선물이었습다."라는 말이다. 그렇다. 이 세 분은 철학을 학문 안에 가두지 않고, 철학에서 깨달은 바를 보통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인격을 지키는 것이 왜 소중한 것인지를, 이웃 사람이 과연 무엇인지, 나라를 걱정하며 지켜 나가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등을 행동으로 보이며 가르쳐 왔다.

저자: 김형석,김태길,안병욱 | 출판사: 비전과 리더십 | (150*210)mm 288p | 판매가: 15,000원

질주를 멈추고, 동행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



지역사회로부터 '착한 교회'로 불리는 교회, 청년은 물론, 30~40대 부부들이 잘 정착하여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벽이 없는 교회로 잘 알려진 '높은뜻 광성교회'. 이 책은 이장호 담임목사가 높은뜻 광성교회 본립 10주년을 맞아 그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모두와도 동행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신학교 교수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학교와 선교 현장에 익숙한 그에게 목회자에서의 10년은 쉽지 않은 행보였으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과 함께할 때 그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걸음걸이였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 이장호 | 출판사: 도서출판 두란노 | (140*210)mm 264p | 판매가: 13,000원

ENHAKKORE MINISTRY

훌륭한 군사
시니어 2기모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있느니라

잠 31:10

일시/ 11월 7-9일
대상/ 40세 이상 장년
회비/ 무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장소/ 과산순복음교회
(충북 과산군 문광면 송평리 194-1)
문의/ 010-5145-3816 (인터뷰 후 등록)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통일위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CTS 키즈, 웅진씽크빅과 MOU

지역교회를 위한 새로운 문화학교 지원모델 제시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 유아교육 전문 1인 방송 '키즈에듀티비'가 웅진씽크빅 '놀이의 발견'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상임동무의 웅진씽크빅 놀이의 발견 사업단에서 진행됐으며 CTS 윤문상 부사장과 웅진 놀이의 발견 이영훈 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웅진씽크빅 '놀이의 발견'은 동네의 '체험학습', '키즈카페', '문화강좌' 등 유아동 타겟 오프라인 교육장과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App 서비스이며 이미 13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CTS '키즈에듀티비'는 최근 유아동의 희망직업 1위가 될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유튜브에서 건전한 유아교육 콘텐츠만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1인 방송 사업으로서 국내 유명 유아교육 교육업체 70여곳 이상과 제휴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웅진의 App기반 130만 유아동 마케팅 플랫폼과 CTS의 유튜브 기반 유아

교육 강화를 교회에 무료로 제공해 비기독교인들도 부담없이 지역교회로 오게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교회 문화학교 모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교회는 별도의 인력과 재정, 운영 부담 없이 육아와 사교육비 절감에 공헌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문화지역을 할 수 있으며, 비기독교인 지역 주민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TS는 우선적으로 10월 내, 5개 내외 시범운영 교회를 선정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지역별로 희망 교회 현장 실사를 거쳐 추가 교회를 선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비기독교인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교회학교와 문화학교 모델의 한계를 벗어나 웅진의 130만 유아동 대상 마케팅 채널과 유아동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유아교육이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 현장 목회자들의 반응이다.

복음신문 창간 59주년 기념예배

〈복음신문(사장 나서영 목사)은 지난 10월 2일(수) 오전 11시 신문사 사무실에서 창간 59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분서성교의 사명을 말씀에 의지해 끝까지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예배는 홍순관 상무의 사회로 찬송가 98장을 부른 후 유덕식 목사(예정대신 증경총회장)가 신문사를 위해 특별기도를 했다.

유 목사는 "우리 민족이 암울한 시기에 있을 때 복음 신문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성령운동과 함께 분서성교

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왔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어진 분서성교의 사명을 완수해 줄 것"을 기도했다.

사장 나서영 목사는 단 4:37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보면 분서성교의 사명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을까 궁금하다. 하지만 신문사의 사명은 성경을 기준으로 비평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고 신문사의 사명을 강조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구로구 신도림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 3년이 되어갑니다. 맨땅에 교회를 세운 후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거리로 나가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간증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를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방전도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 목사님을 통해 우연히 가족세트전도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인원이 적어도 관계없다는 박영수 목사의 말에 힘을 얻고 가족세트전도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가족세트전도세미나를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을 심어주셨습니다. 모두가 세미나를 마친 후 전도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항상 만났던 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나눔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제가 나누어준 간증전도지를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은 저에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목사가 그들에게 다가가 영접기도문을 외쳤습니다.

"사장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분 동안 이 기도를 따라하시면 구원받고 축복 받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과 함께 따라하세요. 사람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영접기도문을 함께 읽은 후 이름, 연락처, 주소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아무런 이야기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니, 영접기도문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가족세트전도법으로 전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감동케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전도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전도지면을 나눠주는 과거의 전도방법에서 탈피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1분 영접전도문을 읽는 능력전도를 할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세트전도법에서 배운 1분 영접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세트전도법을 전도방법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도림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회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지리산 선교유적지 보존, 계승 사업 추진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애틀미 협약 체결 통해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사장 소강석, 공동이사장 인요한)과 글로벌 유통기업인 애틀미(회장 박한길, 대표 도경희)는 10월 18일(금) 오후 2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세미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근·현대사의 문화유산 및 선교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계승해 나가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보존연합과 애틀미는 노고단과 왕시루봉 선교 유적지를 비롯 이곳에서 기거하였던 선교사들의 행적을 스토리텔링화하고 구례군에 위치하고 있는 왕시루봉 유적지를 통해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존연합과 애틀미는 지리산 선교 유적지가 소재하고 있는 전라남도 구례군과의 긴밀한 교류협력력을 통하여 지리산 유적지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보존연합 공동이사장 인요한 교수(연세대 의대)의 환영사와 보존연합 소강석 이사장과 애틀미 박한길 회장의 인사, 정운찬 전 국무총리



와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대표, 구례군 김순호 군수의 축하와 격려의 순서 등으로 진행했다.

협약식에서 인요한 교수는 "나는 어려서 왕시루봉에서 예배드리며 자라났다. 어린 자녀를 잃은 선교사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조선을 더욱 사랑하며 영성을 키워가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의 보존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지리산 선교 유적지는 한 국회의원의 선교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보고이고 나라의 유산으로서 영호남의 선교사들이 함께 만나

서 영호남 화합을 이룬 현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애틀미 박한길 회장은 "척박한 이 땅에 와서 교육과 의료, 복지 시설 등을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섬겼던 선교사들의 흔적을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세들에게 교훈의 장소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며 그 교훈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능성과 도전 그리고 꿈을 심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선교유적지보존연합 오정희 상임이사
(010-3604-230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2020학년도 신입생모집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이하 'ACTS')에서는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모집 원서접수를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ACTS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국내 유일의 학교이며,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ACTS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도 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급변 2020학년도 전기모집에서는 △일반대학원(철학박사, 신학석사, 문학석사) △신학대학원(목회학,

성경강해학) △선교대학원(일반/지역선교학, 스포츠/미디어/비즈니스선교학) △교육대학원(상담, 교육과정, 다문화교육) △상담대학원(기독교상담, 가족상담) △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 등 총 6개 대학원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특히, 선교대학원 비즈니스선교학(Th.M/M.A.) 전공을 신설하여 타문화권 BAM선교사 역과 선교적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 성경적으로 바른 비즈니스선교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신학대학원 성경강해학(Th.M) 과정은 성경의 정확한 주해와 적용을 돕고, 성경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목회학석사(M.Div.) 과정은 초교과 신학대학원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목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이론과 실천신학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배양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ACTS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31-770-7795~6
대학원홈페이지: www.actsackr/grad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스펠라세계선교회 창립, 대표회장에 최정식 목사 선임

선교사 파송과 후원, 인재양성, 극빈자 구제 의료서비스 제공



최정식 목사
대표회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하나님의 지상대명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선교사 파송과 후원, 인재양성을 위

한 신학교의 개설과 운영, 극빈자의 구제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구원의 실현을 사명으로 스펠라 세계선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리고 합찬 받

결을 내었다. 대표회장 최정식 목사의 취임과 선교사 김대진 목사의 파송을 겸하여 지난 10월 10일(목) 오전 1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설교 신재영 목사
총회장

내 텔리하우스 무궁화홀에서 드린 이날 예배는 동선교회 사무총장 김동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국내선교회장 백영자 목사의 기도, 부회장 김승호 목사의 성경봉독, 정명옥 단장 외 드림선교단의 특송, 예하성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계 4:1-2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선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일꾼, 귀한 선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고 스펠라세계선교회의 창립을 축복했다.

이어 서기 한광희 목사의 헌금기도, 이정희 사모의 찬양 후 2부 순서로 선교사



명을 수행할 대표회장 취임, 파송과 증정 및 임명장을 수여하고 선교의 사명을 일깨웠다.

3부 순서로는 귀한 사명을 받은 분들에게 축하하는 시간으로 왕성교회 원로 김동채 목사와 주덕영 목사(나주순복음교회)의 격려사, (주)부국전력 대표 김기수 장로와 분인 광주북구청장, 윤여일 CTS

조이 필리핀 국장의 축사, 대표회장 최정식 목사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최정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창립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충심으로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예하성 증경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비룡부대 방문, 장병들과 친선축구경기

스포츠선교위원회...일레븐연예인축구단(단장 탈런트 최수중)...비룡부대장병들과

교단 총회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김순구 목사)는 지난 10월 12일(토) 일레븐연예인 축구단(단장 탈런트 최수중)과 25사단(사단장 고태남) 비룡부대를 방문하고 장병들과 친선축구경기를 갖는 등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군부대 간부들과 함께한 친선축구경기에는 충남지방회 증경회장 오승욱 목사와 소영진 목사가 후원하고 김순구 목사와 소영진 목사, 박애늬 목사(대한민국축구선교회장)가 참석했으며 연예인 축구단에서는 이덕화, 최수중, 신문선 교수, 김제업 유도 금, 심권호



레슬링 금, 정두홍 영화부술감독, 배도환 탈런트



트, 김지호 개그맨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8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1) 일 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0월 21일(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신 재 영
총 무 목사 이 경 진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단풍을 보지 못한 그때 그 가을

하나님 주신 웃인데 옥에 티가 묻었어요.
마냥 옥으로 곱고 아름답게 보였는데……

그때, 그날에 난 너무 기뻐다 눈물이 날 만큼,
긴 세월 동안도, 어제와 오늘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선포의 그날에
난 감사하며, 너무 기뻐다.
그럼,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아-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에서 본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위에서 꽃 피우리라.

다 버려도 안타까움도 아까울 것도 없지만
육신에 종되어 살았던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했고
의미없는 고생도 많이 한 것 같다.

그날 한 문치의 항암 치료약을 몽땅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니,
아- 이렇게 사는 것도 매우 행복하구나 싶다.
하나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가을 하늘은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기분이 상쾌하다.
육신은 어느 곳이라도 그 있는 것을 느끼면 고장이 난 것이라고
했다.
기억도 생각도 말라. 난 벌써 다 잊어버렸다.
만들어 주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시니까.
난 확신한다, 믿는 대로 되리라 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가는 길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것도 보고,
어여쁜 애인 같은 은행잎에 입도 맞추고, 춤도 추며,
이렇듯 한 십 년이 쉬가리라.
감시를 식물로 삼고, 눈빛이 사랑으로,
두 손은 부지런함으로, 두 발로 똑바로 걷자.
귀도 종국 세워서 하나님 음성을 듣자, 그때까지.
그래도 갈 곳이 있어 난 너무 좋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긴 하루를 아주 짧게 보낸다.



하나님의 부족한 아들, 이제인
2013년 그 가을을 기억하여

올리브영, 홀트아동복지회 통해 4년째 미혼한부모 지원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현)와 CJ 올리브영(대표이사 구창근)은 지난 10월 10일(목) 홀트아동복지회 본부(서울 마포구 양화로 소재)에서 미혼한부모 정서 지원 프로그램 '뷰티풀 맘스테이 시즌 2'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은 홀트아동복지회 김호현 회장과 CJ 올리브영 전라지역담당 배은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6년부터 올리브영은 미혼한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아존중감 및 자립의지 향상을 위해 미혼한부모 정서지원 프로그램에 함께해 왔으며 이날 2천 9백만 원을 후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해 미혼한부모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고히 하고, 미혼한부모와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여행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홀트아동복지회 담당자는 "미혼한부모가 안정되고 행복한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올리브영 담당자도 "건강

한 아름다움이라는 브랜드 핵심 가치에 따라 앞으로 여성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사설

‘제1회 총회 목회자평생교육과정’ 비전 제시

오늘날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비롯하여 사회 현상과 사조(思潮)의 급격한 변화는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의 정보화와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급기야는 인공지능이 목사를 대신하여 최적화된 설교를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파급으로 인한 종교다원주의와 창조질서를 역행하는 성윤리의 붕괴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고 가변적인 상황을 목회자들은 부정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윤리학과 리처드 니이버는 이른바 기독교의 문화대응유형을 제시했는데,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이 중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유형은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유형이다.

목회자는 오직 성경에 계시된 복음 진리를 고수하고 전파하는 자이지만, 또한 사회제 현상의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흐름, 즉 인류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일하심'과 주의 진리에 역행하여 인류를 죽음의 길로 이끄는 '사탄의 파괴적 계략'을 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별해야 한다.

목회자가 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깊이 사고하는 한편

신론으로 상징되는 시대의 생각과 문화를 통찰하고, 더하여 분명의 이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복음 전달자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단 산하에 목회자평생교육원을 조직하고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해 사역하는 사역자의 자세와 지식과 능력을 얻도록, 주제강의와 예배 등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적 신학과 가치를 나누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전략 등의 내용을 제시하며 특히 21세기 한국사회 목회의 과제와 전망을 연구하여 실제적인 목회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교단의 영적, 교회적 부흥을 이루고자 했다.

교단 목회자평생교육원이 조직되고 최초로 지난 10월 17일(목)과 18일(금) 1박 2일간 '목회자의 생명력과 교회의 생존'이란 주제로 열린 '제1회 총회 목회자평생교육과정'이 목회자들에게 영적 재충전과 목회정체성 확립 및 목회적 생존력을 돕고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을 이루는 주역이 되고 영적 각성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전국에서 새벽부터 출발하여 이틀간의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전후배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동역자들의 더 깊은 관심과 기도 사랑과 적극적인 참여로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찬 목회자평생교육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6)

‘북핵 폐기’ 본질로 돌아가야

북한의 비량 끝 전술이 미국 대선을 앞 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공경을 두고 본격적인 기 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 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고 경고했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회담 재개 조건으로 요구했다. 미국과 북한 협상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자신들만의 계산법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붙여 제2 하계 등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으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비핵화와 거리가 먼 타협을 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유엔 제재 위반임에도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 대북 제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선 안 될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정부는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이 열리는 날을 꿈꾼다"고 말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발연 입을 닫았던 정부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일을 초청하는 데 정심이 팔려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핵의 불모로 삼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여타 행위들로 본질 또한 흐리지 말고 북핵 폐기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채위원장 조동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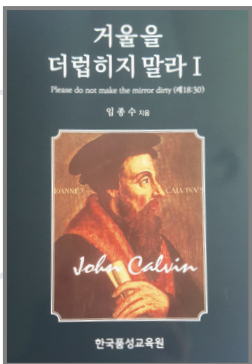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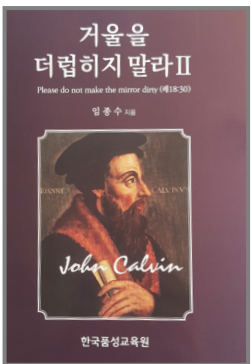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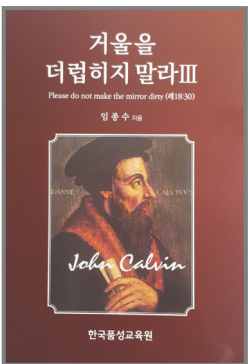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올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 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제72회 구역장 세미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전도와 봉사를 위한 사명감 충만,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 제72회 구역장 세미나가 10월 14일(월)과 15일(화) 두 차례 성전별로 나누어 안양성전과 전원성전에서 성대하고 은혜롭게 열렸다.

구역장들은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을 통해 헌신의 자세를

가다듬고 복음전파와 우리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심전력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성령충만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다.

세미나는 다른 성전과 교구의 구역장들을 서로 함께 환영하는 시간에 이어, 조용목 목사의 특강과 시상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용목 목사는 히 4:16 말씀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구역장들의 전도와 봉사 또한 불신자와 연합하고 곤경에 처한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역설하였다.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조용목 목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고 강조하시며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구역장들에게 당부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법사에 형통하며, 권능 있는 구역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장유성전 임진규 구역장과 대전성전 공석남 수석구역장 등 올해로 20년째 구역장으로 헌신해 온 263명의 남녀 구역장이 영예로운 20년 근속상을 받았다.

이어진 전도상 시상식에서는 안양성전 신본1교구 정명숙 구역장이 전도특별상을, 333명의 구역장이 전도대상과 전도상을 받았다.

한편, 14일(월) 안양성전에서 열린 구역장 세미나에는 교회의 해외선교사 초청대회에 참가 중인 각 국 선교사들이 참석하여 구역장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세계선교연합회 ‘그레이트 앤드 트루스 미션콰이어’가 참가 국가들의 언어로 합창 찬송하며 선교사들과 구역장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선사하였다.

홈페이지: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 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http://agpgs.aogk.org

2020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